



MEDUGORJE

평화의 모후

2013. 12 / 1 제 68호

Queen of Peace Missionaries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과 구원을 위하여 ...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어머니 마을을 위하여 ...
 - 박창득 어거스틴 문시놀을 위하여 ...
 -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 젊은이들의 많은 성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죄인들의 회개와 불쌍한 연옥영혼들을 위하여 ...
 - 가정을 주님께 봉헌하오며 성소자가 나올 수 있도록 ...
 - 아들 00의 컴퓨터 중독을 끊게 해 주십시오.
 - 저의 몸과 영혼의 치유위해 기도해 주세요.
 - 많은 이들이 엄마 메시지 따라 살도록 불러주세요.
 - Don 허리병을 위해 미사를 봉헌해 주세요
 - 최00, 서00 두 자매님의 암을 치유해 주십시오.
 - 자연 재해로 고통 속에 있는 필리핀 국민들을 위하여 ...
 - 매일 삶을 지탱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
 - 성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외손자 000을 위하여 ...
 - 성모님, 사위 000의 salcoma를 치유해 주세요.
 - 늘 예수님과 성모님의 은혜와 축복의 장소로 인도해 주옵소서.
 - 00에게 영육간에 건강과 하느님의 필요한 은총을 구합니다.
 - 온 세상과 온인류를 위한 예수 성심과 성모성심의 지향을 위하여
 - 동생이 뇌수술이 잘되어서 회복되고 주님 믿도록 기도해주세요.
 -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식구 모두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 가족 모두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가정이 되길
 - 0000의 내적 치유와 병자성사를 통한 세례 받기를 간구합니다.
 - 000테레사의 영육간의 건강과 하루 속히 취업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자손들의 성소를 축복하여주시고 지켜주소서.
 - 00의 류마치스 관절염과 생계유지와 마음의 평화, 굳건한 신앙심을 위하여 ...
 - 금년 75세 고령으로 은퇴하시는 Rev. John Smith- 천요한 신부님을 위하여
 - 우리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무럭 무럭 잘 자라도록 기도합니다. 믿음도 주십시오
 - 아픈 가족들의 치유와 믿지않는 가족, 집안 식구들이 하느님께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 어려움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은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 냉담하는 가족이 주님을 믿고 성가정을 이루며, 우환과 불행이 없도록 은총을 주소서.
 - 아들의 사제 성소를 축복해주시고 모든 유혹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 000의 발달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모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 성모님, 우리 아들000가 많이 아파요. 필요한 치유와 은총을 부탁드립니다.
 - 아들의 치유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홈레스 생활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 친구를 도와주세요. 마음속에 미움을 용서해주시고 도와주세요.
-
-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모든 기도지향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 모든 미사와 기도지향들을 위하여 매주 및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때 봉헌해드립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증인들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서와 성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성모님의 메시지와 묵상 (1)

요조 죠브코 신부 OFM



(요조 죠브코 신부님은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 초기의 성야고보 성당의 주임이셨습니다. 발현 초기 성모님의 발현을 반대하던 요조 신부님은 성당에서 묵주기도를 할 때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한 후 부터 일 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성당에 모여서 메주고리에 저녁예절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모두 사랑 한다. 나는 너희 어머니이고,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을 닮기 바란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내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기도는 기쁨이다. 기도야말로 인간의 마음이 열망하는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그러니 티 없이 깨끗한 내 성심에 더 가까이 다가오너라. 그러면 너희는 하느님을 발견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94년 11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1994년 11월 25일 메시지는 다른 많은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는 메시지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계획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자연의 섭리는 봄이오면 깨어나는 것처럼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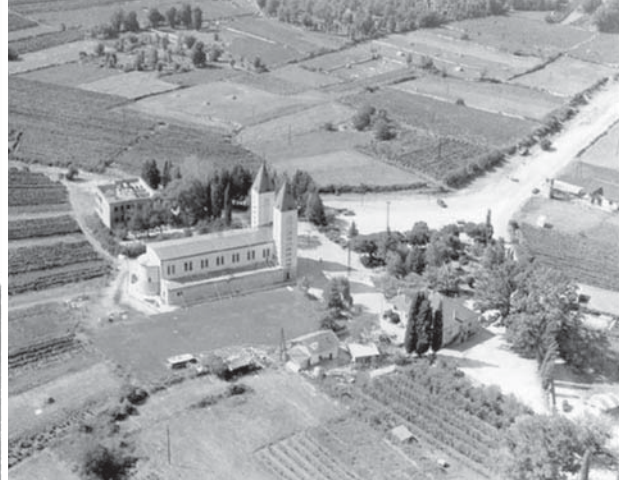
기도 없이는 가치가 없는 것이며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즉시 어둠으로 떨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빛 속에서 살며 기도는 빛을 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의심 속에 생활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둠을 밝혀 줄 지혜들이 부족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있지만 오로지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만이 기도하고 문을 열 줄 압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그만두는데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하기를 멈춘 이는 어느 날인가 자신이 틀림없이 큰 실수를 범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노아는 방주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나자로는 부자에게 당신의 형제들에게 가서 알릴 수 없다고 함으로써, 오로지 지금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마술이나 의식도 아니며 더구나 습관도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을 때, 자녀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기도하는 인간은 하느님 앞에 있는 것이며,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께로부터 빛을 받던 모세와 같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한 메시지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의 어머니며 너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닮기 바란다. 기도없이 너희들이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다. 기도는 기쁨이며 인간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기도가 기쁨

평화가 없는 곳에 하느님께서는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발현 초기의 성야고보 성당



이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느님과의 만남이 기도이고 하느님을 뵈기를 갈망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하느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교육과 문화, 신앙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으며, 기도를 잃어버릴 수 없고 가정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영역 속에서 목격자들과 메주고리에 본당과 메주고리를 찾는 순례자들은 성모님의 메시지들 속에 들어 있는 씨앗을 뿌리는 이들이기에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곳을 가시덤불과 길거리와 바윗돌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셨습니다. 비옥한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치십니다. 당신의 마음은 비옥한 땅입니다. 하느님과 성모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줍니다. 악의 씨앗과 죄의 씨앗 또한 존재합니다. 악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좋은 땅을 불일치로 만들어 버립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젊은이들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악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며, 가정을 파괴하는 증오는 또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전쟁과 낙태를 조장하는 증오는 어디에서 온단 말인가?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다.'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하느

님께서는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해 교황 성하께서는 가톨릭 신자들은 평화의 책임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악과 전쟁을 멀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성모님께서서는 '기도'로써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예수님과 성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평화와 사랑과 신앙을 원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지금 즉시 기도하기위해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사탄은 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십 년전 메주고리에 목격자들에게 파괴된 한 도시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를 본 목격자들은 "우리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무엇을 증언하고 계시는가?
오로지 기도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서와 성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임무는 바로 우리에게 대한 모성애입니다. 그분께서는 어머니로서 자녀인 우리들을 교육하시고 인도하시며 성장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의 삶 속에 현존하시면서 당신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M**

미르출판사 발행 다섯개의 조약돌에서 / 구입: 평화의 모후 선교회



겸손의 길을 따라서

500. 93. 9. 8. 벳푸 오이타(일본).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탄 축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은 너희의 '아기 엄마(인 나)를 바라보아라. 지상 삶에 태어난 순간의 나를 너희가 공경하고 있으니, 내가 누인 요람 돌레를 사랑과 겸손의 향긋한 화관으로 꾸며 주려무나. 나는 너희 '엄마'이다. 너희로 하여금 겸손과 작음, 유순과 순종, 극기와 순결의 길을 따라가게 인도하는 엄마이다. 매일 겸손의 길로 나를 따라 오너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더없이 놀라운 기적을 보도록 불려졌기 때문이다. 주께서 당신 '여중'(인 나)의 겸손을 그윽한 (애정으로) 바라보셨듯이, 오늘날에도 내 작은 아들들인 너희 모두의 겸손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

겸손의 길을 따라 작은 사람이 되는 법을 (내게서) 배워라. 마음이 교만하고 건방진 이들은 누구든지 내 원수가 감쪽같이 속여넘기는 오늘날, 너희는 항상 '진리' 안에 머무르며,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선포하여라. 그리하여 이 극심한 암흑의 때에 만민에게 '복음'의 빛을 펼쳐라. 그러면 너희가 바로 오늘날의 하느님 음성이 된다.

하느님께서 너희를 통해 다시 말씀하시고, 내 작은 아들들의 침묵으로써 권세와 힘을 가진 당신 적들에 대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신다. 겸손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이 시대에는 내 '원수'가 많은 사람을 자기 주장적이고 반역적인 악한 정신으로 유혹하고 있으니, 너희는 겸손과 용감한 순종의 모범을 보여 주어라.

교황과 그와 일치하는 주교들에게 순종하고, 너희의 사제 생활을 규제하는 모든 지침을 유순히 따르며, 너희에게 더욱더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이 완전히 이루어짐을 통해 너희 안에서 날마다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라. (*마태 6,9-10 참조)

겸손의 길을 따라 순결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내 원수가 모든 사람들을 죄와 불순결의 암흑으로 이끄는 데 성공하고 있으니, 너희는 순결 안에 머물러, 거룩하고 흠없는 사제 생활의 모범이 되어라. 특히 독신 생활에 대한 너희의 서약에 기꺼이 충실할 줄 아는 증인이 되어라. 사제의 몸은 세속과 그 모든 유혹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의 '탄생' 축일인 오늘, 내 조그만 아기가, 그래서 너를 또다시 이 멀고도 큰 나라에 데려왔단다. 수천만의 네 형제들이 아직도 이교적 암흑에 잠겨 살고 있음을 보아라. 이들은 오로지 하나인 양우리 안에 들어와, 마침내 '착한 목자'(*요한10,11,14)이신 분의 달디단 음성을 알아듣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내가 오늘 미리 말하거니와, 머지않아 이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세상에 티없는 내 성심이 개선함과 더불어, 아직은 이교도인 이 큰 나라 전체가 '착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우리 안으로 들어와 그분의 양 떼에 속하게 되리라. (그러니) 너희 천상 엄마의 음성에 유순히 귀 기울이며 겸손과 신뢰 안에서 그때를 준비하여라.

오늘 나는 너희를 축복하며 손잡고 이끌어 너희에게 이미 들이닥친 대환난의 고통스러운 때를 (잘) 지내도록 한다.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님과 만날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당신 '왕국'의 '광채'에 싸여 너희에게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M**

(위의 내용은 "다락방 기도회" 창설자이신 스테파노 고프비 신부님께서 1973년부터 1997년까지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참고-가톨릭 출판사,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상처받은 교회를 치유하는 길

스테파노 곱비신부

(마리아 사제운동(M.S.M) 창시자 스테파노 곱비 신부는 밀라노 교구에 있는 '성 바오로 수도회' 소속 사제이며, 로마 교황청 직속인 라페라노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2년 5월 8일 파티마 성모님 발현 경당에서 기도 중에 '마리아 사제운동'을 시작하라는 성모님의 부르심을 받은 곱비 신부는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받았다. 1972년 10월 13일에 두사제와 함께 시작한 '마리아 사제운동'은 성모님께서 1917년에 파티마에서 예고하신 티없는 성심의 승리와 평화의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으로서 전 세계에서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기도운동으로서 주교 400여 명과 사제 10만여 명이 350여 만 개의 평신도 다락방 기도회가 있다.

다음은 1987년 9월 28일에서 9월 30일까지 한국 인천 샬미나드 피정의 집에서 있었던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의 강론으로서 성모님의 메시지와 마리아 사제운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소개한다. - 편집자주-

성모님께서 사제들에게 바라시는 것...

제 1 강론

내가 한국에 와서 체험한 것은 정말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월등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곳곳에서 사랑의 교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신학교와 열심한 신부님들 그리고 수많은 신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은 그 무엇보다도 더 감격적입니다. 이 피정을 위해서 전국 각처에서 모든 신부님이 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에 마리아 사제 운동이 무엇이고 성모님이 우리 사제들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님은 우리 사제들을 지극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 마리아 사제운동은 성모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모님은 이 운동을 창립하시고 당신의 메시지가 담긴 책을 통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성모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과분한 은총입니다. 성모님은 아무 가치가 없는 이 도구 (곱비 신부)를 통해서 그 메

지금은 성모님께서 파티마에서 예언하신 시대입니다.

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위해서 맨 꼴찌가 되는 결점 많은 이 사제를 택하셨습니다.

1972년 5월 8일 이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파티마에 가서 성모님이 발현하신 그 성당 앞에 있을 때였습니다. 성모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 운동을 시작하시고 싶다는 것을 내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나는 몹시 놀랐습니다. 그때 안심하고 기도하며 고통을 참으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당신께 맡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모님은 정말 이 운동을 몇 해 만에 전 세계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인간적인 수단과 조직이 없이 자발적으로 퍼져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수백 명의 주교님과 6만여 명의 사제와 수많은 신자가 지금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왜 성모님은 이 시점에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인가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위기에 놓인 교회를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당신의 자녀들이지만 우리 사제들을 각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묵시록 12장의 시대

이 운동이 왜 파티마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파티마의 메시지와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이 운동이 시작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성모님께서 파티마에서 예고하신 바로 그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교황님은 우리가 지금 묵시록 12장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묵시록 12장에는 네 가지 기본적 요소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구원 투쟁을 위한 대전투의 시기입니다. 두 무사가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태양을 입은 여인"과 "붉은 용"입니다. 태양을 입은 여인은 모든 천사들이 받들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그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용의 주위에는 악마들이 맴돌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반대되는 모든 자들이 그 편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없으며 필요치 않고 섬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잠정적으로 현재의 승자는 붉은 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용이 하늘의 별의 1/3을 휩쓸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세 번째, 그 붉은 용의 지배 기간은 계속되지만, 그 기간은 짧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궁극적으로는 태양을 두른 여인에게 승리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묵시록 22장을 읽으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스릴 시간을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시어 그 일곱 용을 포박하여 지하에 보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파티마의 메시지는 바로 12장을 주석한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파티마의 메시지에는 그 네 가지 요소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파티마에 발현하신 성모님은 그와 같이 태양을 몸에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파티마의 기적은 태양의 기적이었습니다. 성모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태양을 입은 여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917년에 붉은 용이 또한 나타났습니다. 1800년부터 하나의 이데올로기로만 존재하던 마르크스주의가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 정치적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세력은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그 힘을 과시했습니다. 러시아는 그 오류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무엇입니까? 무신론적 이데올로기의 공산주의 집단을 말합니다. 남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성당과 사제들과 신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북한을 보십시오. 신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그들이 지배하는 기간은 짧으며 결국에는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이 승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지의 요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아직도 그 붉은 용이 지배하고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사방에서 창궐하고 그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께서 어느 날 이른 아침 미사를 집전하시는데 어떤 환시를 보셨습니다. 사탄이 하느님께 도전하여 그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게 한 세기만 달라고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황님은 그 환시를 보시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교회로서는 가장 큰 투쟁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예견하신 것입니



다. 그 후 교황님은 구마기도에 열중하셨고 모든 사제들에게 미사 후 이 기도를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성모님의 발현도 비슷한 사건이었습니다. 18세의 「미리야나」라는 소녀에게 성모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탄이 하느님께 도전하여 교회를 없앨 수 있는 한 세기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 세기의 끝입니다. 사탄의 지배가 끝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태양을 두른 여인의 힘은 갈수록 더 커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금년을 성모성년으로 선포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 시기에 성모님의 힘은 더욱 커지고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것입니다. 성모님의 특별한 현존의 힘이 지금 이 마리아 사제운동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직 지배하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성모님이 이 사임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티 없으신 성모성심의 섭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섭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이 세상에서 인류로 하여금 하느님 없는 문명, 무신론적 문명, 세속적 문명을 건설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진 하느님 없는 세계의 모습은 역

사상 그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세계를 지배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의 그 힘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힘이 교회 안 에까지 스며들어와 교회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서 사탄의 힘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회는 신적이고 또 인간적인 것이지요. 인간적인 부분, 그것은 연약하고 죄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해 가는데 있어서 인간적인 그 부분은 교회가 살아가는 그 세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질병(세속주의)은 교회의 그 인간적인 부분에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속주의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기적 집단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이 위기적 상황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사제들뿐만 아니라 봉헌된 영혼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세속주의가 교회의 신비 자체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구원의 신비를 보게 하지 않고 세속적 차원에서 교회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권위와 합리적 명분이라는 것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계제도는 그

오늘날의 세속주의는 교회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교황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매스 미디어의 힘입니다. 매스 미디어에 의해서 우리의 세계는 모두가 제약을 받고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계가 제시하는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서히 그리스도적 생활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세계에 의해 받고 있는 상처 이 세 가지는 사제를 사이에서 보이는 위기, 교회의 인위적 분열, 세례받은 이들의 실천적 배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어떤 교회법적 성격도 띠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세 가지 헌신적 과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티 없으신 성모성심께 봉헌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황과의 일치입니다. 이것은 교계적인 교회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 신자들을 성모님께 봉헌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곧 세상에서 상처받은 교회를 치유하는 세 가지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세속주의는 우리 사제생활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사교방식에도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머리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느님이나 계시된 진리까지도 - 이성 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 하지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진리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제들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진리를 스스로 없이 부정해 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모두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기적들을 하나의 문학 유형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어떤 것은 고대교회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며 구약성서도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신앙의 결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복음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은 이 책에서 너희는 너희의 생각이나 말로 복음을 만들어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신앙의 진리 하나를 부정하는 것은 그 진리의 진부를 투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제직에 아직 남아 있지만, 신앙 자체를 잃어버린 사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성모님은 우리 사제들을 도우시기 위해 우리가 당신께 봉헌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티 없으신 당신 마음에 봉헌하기만 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모님께 봉헌함으로써 우리는 신앙의 건강한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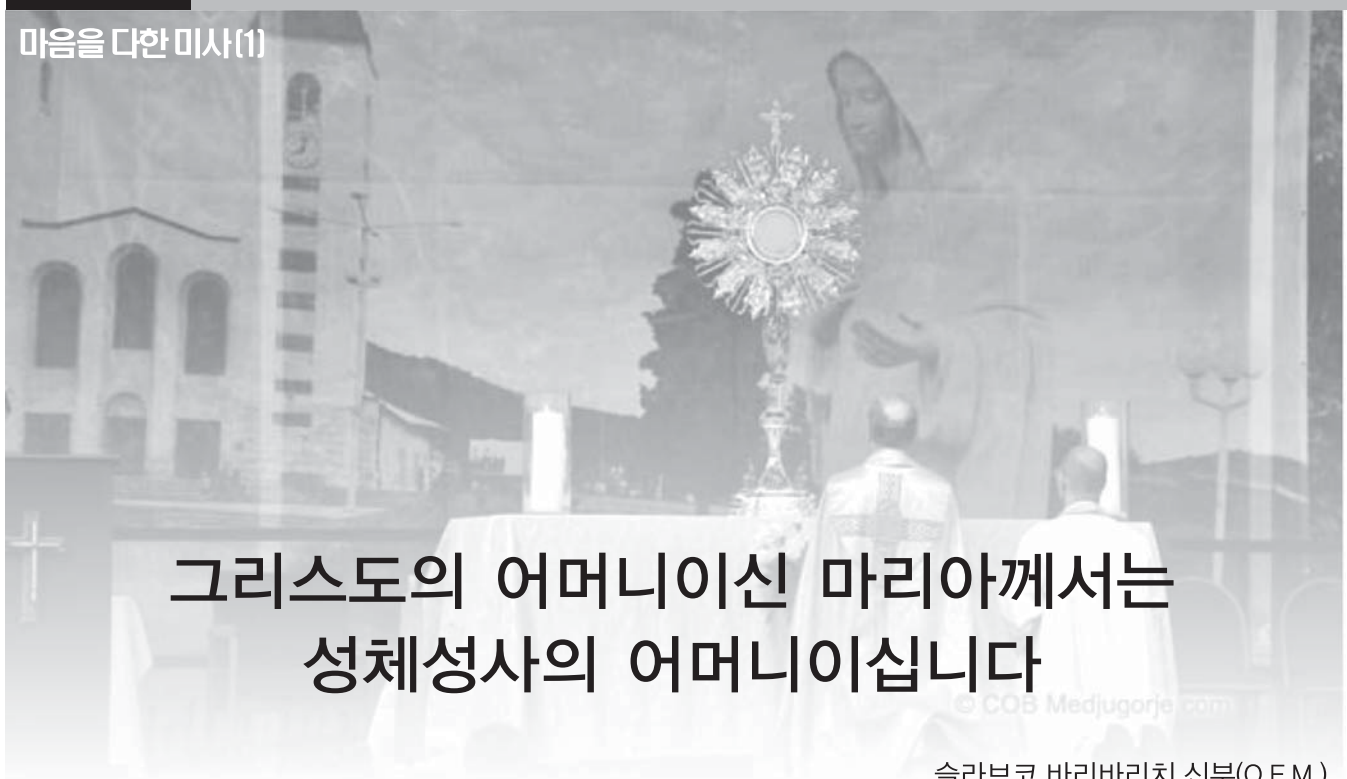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모마리아께서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언제나 한 걸음 앞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당신께 봉헌을 하고 당신을 따르는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M**

다음호에 연재됩니다



**태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묵주기도 5단을
봉헌해주세요.**

- 태아들의 생명을 위하여...
- 낙태아들의 영혼을 위하여...
- 낙태 종식을 위하여...
- 낙태한 부모들의 치유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는 성체성사의 어머니이십니다

슬라브코 바리바리치 신부(O.F.M.)
번역 : 남기욱



소개하는 말

슬라브코 신부님의 이전에 출판된 두 권의 책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네 상처받은 마음을 나에게 다오"라는 기도에 대한 작은 지침서들은 기도를 비취 볼 수 있게 하는 깊은 내면으로부터 오는 하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출판되는 책은 "마음을 통해 봉헌하는 미사"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 전례 내부에 자리 잡은 심오한 신비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책입니다.

거룩한 미사는 예수님의 피 흘리지 않는 희생제사로 이해합니다. 미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창조물인 인간에게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가치를 선사하십니다.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과 가장 위대한 기적을 우리 앞에 드러내시고 소개하는 것이 미사입니다. 하느님께서 항상 미사를 통해 창조 이전부터 인류를 끊임없이 사랑하셨음을 드러냅니다.

왜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가장 고귀한 좋은 것, 가장 중요한 빵과 포도주를 인간에게 주시는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면에서). 왜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자신을 주시러 오시는

가? 왜 하느님 스스로 몸을 빵으로, 피를 포도주로 변모케 하여 당신의 친구인 인간의 영혼에 양식이 되는 방법을 좀 더 멋지게 하실 수는 없는 것일까?

위에서 언급한 슬라브코 신부님의 소책자 두 권이 영적인 정점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안내서였다면 이 새로운 소책자 역시 하느님의 사랑의 신적인 풍성함의 우수성을 향해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출판된 두 권의 책이 주님과 주님의 식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한 것이라면 이 책은 그분의 식탁과 그분의 잔칫상 앞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미사에 관해 논술해야 하는 전체적인 것들을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책을 손에 들고 읽고 있는 독자들을 감춰진 영적인 풍성함과 대낮의 빛과 영혼의 복됨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미사와 성체성사의 잔칫상의 놀라운 사랑을 통한 관계에 대해 현실적으로 무관심한데 놀랄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미사는 내적인 변화나 특별한 준비없이 가서 구경할 수 있는 싸구려 단막극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사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위해 영

십자가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는 표징이며

혼은 준비되어 미사를 통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책의 결론 부분에서 크로아티아의 유명한 배우는 많은 신자들이 주일 미사를 끝내고 나오는 표정들이 냉담한 것처럼 자신의 연극이 끝난 뒤에 관객들이 냉담한 표정으로 극장을 나온다면 당장 배우생활을 때려치우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소책자 역시 이미 출판된 두 권의 책처럼, 특별한 때를 위한 기도들이 포함되어 있고 성경 말씀을 인용한 지향기도, 어머니 마리아의 메시지들,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의 고통스러운 묵상과 조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신앙인 공동체를 위해서 쓰인 목적대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해석되어야 하며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책은 분명 영적으로 성장하고 결실을 맺기 위해 많은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야콥 부발로 Jakov Bubalo)

성체성사는 하느님의 선물

거룩한 미사를 봉헌한다는 것, 성체성사의 희생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삶을 가르치는 가장 아름다운 학교에 등록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살아가는 법과 죽는 법을 배우고, 인간에게 베푸는 우정과 사랑,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하려는 힘을 배웁니다. 다른 이들이 용서하지 않아도 용서를 배웁니다. 서로 생각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이 세상에서 자비를 베푸는 법을 배우며, 친구에게 사랑을 베풀 듯이 원수에게 사랑을 내주는 것을 배웁니다. 어둠과 독소가 가득 쌓여 더 이상 걸어나갈 수 없는 이 세상의 길에서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면서 각 개인은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고, 생명을 위한 빵과 빛이 됩니다.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면서 인간은 치유되고 거룩함으로 불리기 위해 거룩해집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은 평화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받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사 끝에 가서 평화를 전하라는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면서 인간은 악과 죄를 쳐부수게 되고, 죽음의 사슬을 풀어헤치며 기쁨의 삶, 하느님과 다른 이들과의 친교의 삶을 이루게 됩니다. 지친 몸으로 돌

아와 휴식을 취함으로써 필요한 힘을 충전합니다. 이렇듯 미사에 참여하면서 각 개인은 성체성사의 인간이 되고, 순수한 사랑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의 창조에 협력하게 됩니다. 거룩한 미사, 성체의 희생제사는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삶의 중심이 되고 생명을 위해 열려 있게 하는 핵심입니다. 미사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결실을 맺을 수도 없게 됩니다. 미사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더욱욱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미사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라비틀어진 마른 나뭇가지 혹은 바싹 말라 버린 빈 우물처럼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힘이 결여되어서 썩 썩 갈라져 버린 강바닥으로 드러나 점점 더 황폐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핵심인 성체의 희생제사 없이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활동은 공허할 것이고, 성체성사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삶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체의 희생제사와 그리스도의 현존은 우리를 향한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러한 희생 속에서 그분께서는 실제적인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현존하시는 것입니다.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는 표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징이며,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 위대하신 구원자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는 성체성사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성체성사로부터 드러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하시며 미사가 삶이 되고 삶이 미사가 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미사와 단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빵을 통해 천상으로 오신 진정한 하느님의 성체성사의 빵을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또한, 미사 준비를 잘하도록 권고하시며, 미사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타오르는 모닥불이 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성체 조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분 속에 남아 있는 것이며, 그분을 경배하고 매일매일 더욱 깊이 세상에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의 신비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작은 책은 메주고리예에서 사제로 생활하고 있는 제 경험의 한 토막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 성체성사를 통해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영감이 온다는 것,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와 묵상으로 미사를 준비해야 하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또 제가 느낀 것은 많은 사제와 평신도들이 미사에 대해 느끼는 위험을 보았고, 신자들이 미사 준비도 없이 참여하고 감사 기도도 없이 썰물처럼 성당을 빠져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급기야 그 위험은 평일 미사 혹은 주일의 거룩한 미사가 해결해야만 하는 "의무"처럼 전락해버립니다.

사랑하는 독자와 신심 깊은 여러분, 이 책이 여러분 손에 쥐어 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께서 성체성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의 성체의 사랑의 형용할 수 없는 원천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계속해서 희생할 준비가 된 사랑 속에서 성숙하라고 가르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사랑이 우리를 평화를 위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께서 당신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통해 행동하신 것처럼 이것은 준비된 사람이 있는 곳, 구속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분명 성체성사는 하느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분께 다시 봉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다한 봉헌과 기도

기도할 때 마음으로 하라! 라는 말은 분명한 초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미사에 참여할 때 마음을 다해 참여하십시오. 당연한 말이고 권고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순수하게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고 정성을 쏟아서, 고귀함과 온 정신을 다해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삶 안에서 누군가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우리를 환영했거나 또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이것이 바로 온 마음을 다해 그를 도와주고 경의를 표한 것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실한 사랑과 깊은 우정을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실제로 마음은 사랑과 우정의 동의어(同義語)이지만, 내적인 삶과 참여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고 미사에 참여한다는 뜻도 자발적으로 행한다는 뜻이며 강요당하지 않고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는 모든 지겨움이나 시간을 허비한다는 느낌, 혹은 기도나 거룩한 미사가 별 소용이 없다는 느낌 등은 설 자리가 없다는 뜻도 됩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미사를 거행한다는 것이 "똑같은 방식으로 고지식하게 있으라."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느낌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가끔 이런 행동은 삶의 방식에 따라 기쁨을 느끼는 순간을 동반하지만, 메마른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의 가치는 느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 무엇인가 실현시키고 싶고, 하고 싶다는 희망이나 열망만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미사에 참여할 때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예를 들어 어느 어머니가 병이 난 아들을 위해 온 밤을 새워 병상을 지켰다는 자체는 오로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피곤함이나 불안감,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반대로 사랑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사랑을 통해 행동할 수 있도록 지속시킵니다. 하지만 사랑이 느낌에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 사랑의 지속성이 아니라, 감성에만 안주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 속에서 기도와 미사를 거행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은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던 길을 바꾸지 말고 지속적으로 밀고 나아가 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와 미사로부터 떨어져 갔는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도 않고 미사에 참여하지도 않게 되고 맙니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와 미사 거행은 처음부터 드러납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인사를 할 때, 악수를 하고 말을 나누기 위해서는

정성으로 할 것인지를 순간에 결정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당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으면서 성호를 그은 뒤, 앉거나 서거나, 무릎을 꿇든지 혹은 성체를 영하든지 성당을 나가는 등의 행위는 얼마만큼의 사랑과 경의를 가지고 행했는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셨고 이것은 "항상 더 많은 사랑을 통해!"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어떤 사람들은 오기는 해도 기도에서 더 나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매 순간 온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도록 기도하라고, 어머니들이 하듯이 너희에게 주의를 주고 싶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85년 5월 2일). **M**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의 사도가 될 수 있고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나의 아드님이 주시는 사랑의 빛을 알게 되도록 도와줄 수 있기 위해서는 너희는 반드시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너희의 마음 안에 주님께서 임금이 되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주님을 모르는 이들의 마음 안에서 나의 아드님이 태어나시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도록 너희가 그분께 도움을 드릴 수가 없단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의 어머니로서 너희와 같이 걷고 있으며 너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단다. 겸손하지 않은 이들은 마음을 열 수가 없단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가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나의 아드님께 열어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은총을 너희가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인 너희도 또한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나의 아드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며 너희는 하느님의 사랑의 열매를 방방곡곡에 전파하는 나의 사도가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과 '하나'가 됨으로써, 나의 아드님께서 너희 안에서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나의 아드님을 통하여 나의 모든 자녀들이 일치하는 것을 나는 어머니로서의 성심으로 바라고 있다. 나는 큰 사랑으로 너희를 축복하며 나의 아드님이 뽑으신 이들, 너희의 목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고맙구나."
(성모님께서는 처음에는 슬퍼하셨으나 그 후에는 단호하셨습니다.)

2014년 1월 2일 성모님의 메시지

발현 목격증인 미리야나

티없이 순결한 잉태...

피에르 쥘리앙 에이마르

원죄없는 잉태의 은총은 성모님께 주어졌던 온갖 은총을 능가하는 - 성모님 모성의 은총까지도 능가하는 - 은총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비록 성모로서의 존엄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느님께 있어서는 중요했고, 성모님을 위해서 더욱 중요한 은총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은총은 후에 성모님께 부여될 온갖 특전의 기반이요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며, 동시에 우리 죄인들의 어머니가 되시는 것은 그 은총에 비교하면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위대하고 고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당신께서 베푸시는 존엄성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가 지니는 성스러움과 순결입니다. 거지가 임금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거지가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죄없는 잉태는 성모 마리아님의 순결과 성스러움을 보증하는 것이었고, 또한 그것은 마리아님께서 받으신 은총 중 가장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리아께서는 그 어떤 피조물들보다 하느님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모성의 몸에 감추어진, 유혹에 약한 그러한 피조물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모든 천사와 성인들의 하나 된 사랑보다도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소득은 항상 자본에 비례하여 얻게 마련입니다. 성모 마리아님께서서는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무한한 소득을 가져올 무한한 은총의 자본을 소유하셨습니다.



원죄없는 티없이 순결한 잉태는 성모 마리아님의 모든 덕행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마리아님께서 은총의 풍요로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들었던, 성모 마리아님께서 지니셨던 근원적이고 우월적인 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님께서 성령의 지극히 작은 영감에도 결코 불충실한 적이 없으셨으며, 당신께 주어진 모든 은총에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셨음을 하나의 원칙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성모님처럼 그렇게 충실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총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즉, 충만한 은총 속에 있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천사는 마리아님께 "은총이 가득하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주님이 함께 계시니"라고 마리아님께 말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성모 마리아님과 함께, 그리고 마리아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안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님께 있어서는 은총이 가득하지 않은 공간이 없습니다. 오! 성모 마리아님, 당신께서는 주어진 모든 의무에 충실하셨으며, 주님의 모든 원의에 따라서 충실히 행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결코 덕행을 실천할 기회를 놓친 적이 없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하느님의 모든 거룩한 빛을 기쁨 속에서 맞이하셨으며, 그 어떤 하나의 빛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삶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토록 은총에 충실함으로써 성모 마리아님께서서는 덕행에 있어서 끊임없이 진보

오직 하느님은 순결한 영혼들에게만 당신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 주십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님께서도 당신 은총의 자금을 앗아갈 아무런 두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굳건히 지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같은 마리아님의 모범은 얼마나 훌륭한 교훈이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이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는 그 은총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님께서 흠없이 순결하셨던 것은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님께서 유혹이 결코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당신 자신을 엄격하게 지키셨고, 당신의 성화에 끊임없이 노력하셨습니다. 당신의 성화는 지속적으로 성덕을 쌓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마리아님께서도 세상의 비방을 피하기 위하여 세 살 때부터 성전에 은둔하여 생활하셨습니다. 마리아님께서 오직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던 순결한 영(靈)인 천사 앞에서만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마리아님께서도 당신이 하느님을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노년(老年)도 또한 고통에 있어서 조금의 경감도 없이 지속된 순교의 삶이었습니다. 실로 마리아님께서도 원죄없는 잉태로서 주어진 티없이 순결한 옷에 아름답게 수를 놓으셨습니다. 마리아님께서도 당신 덕행의 꽃으로 그것을 꾸미시고 장식하셨습니다. 마리아님께서도 늘 이 원초적인 은총을 발전시키고자 하였고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셨습니다.

원죄없는 잉태는, 다시 말하면, 성모 마리아님의 권능과 영광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순결과 정결에 의해서만 하느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오직 티없이 순결한 영혼들을 통해서만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오로지 순결하고 관대한 영혼의 소리만을 들으십니다. 성모님의 순결은 한 점의 흠도 결코 입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성모님의 영향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큰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머니가 아들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 그런데 죄를 지어 부정한 어머니가 어찌 아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순결한 어머니를 거절할 수 있는 자식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속죄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어떤 것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자께서 어찌 성모님을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인가! 모든 은총은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성모님은 모든 은총의 보고(寶庫)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류 구원을 위한 당신의 모든 권능을 성모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모 마리아님께서 입은 영광은 그 얼마나 큰 것입니까? 순결하심으로써 성모님은 '천국의 모후'가 되시는 특권을 얻으셨고, 지금은 천국에서 성자의 오른편 옥좌에 앉아계십니다. 성모님은 천국에서 하느님의 흠숭을 제외한 온갖 영광과 공경을 받고 계십니다. 성모님은 천상 낙원에서 더없는 기쁨이 될 만큼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순결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모님의 모든 은총과 덕행, 그리고 모든 권능과 영광은 당신의 원죄없는 잉태 - 티없는 순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막대한 지참금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정화되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갓난 아이는, 세례성사를 받는 순간, 하느님의 궁전 - 즉, 하느님의 낙원의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기 위한 어떤 희생을 치를지라도, 세례의 순결함을 지켜야만 합니다! 부주의하여 순결을 잃어 버릴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다시금 정화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한 시도 순결을 잃은 상태에 놓여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단지 생각의 순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행위 속에서 우리는 순결을 간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의지와 의향, 그 모두에 있어서, 순결을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 우리의 삶 속에 놓여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 삶의 순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순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성체의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순결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순결한 사람만이 하느님을 뵈올 수 있으며, 숨겨진 장막을 꿰뚫어 하느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느님은 순결한 영혼들에게만 당신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순결은 지극히 미소한 언짢은 기분까지도 결코 허락하지 않는 애정의 섬세함을 갖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욱 정화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에 오십니다. 우리를 정화시킴으로써 주님께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심으로써 주님께서도 우리와 더욱 친밀한 결합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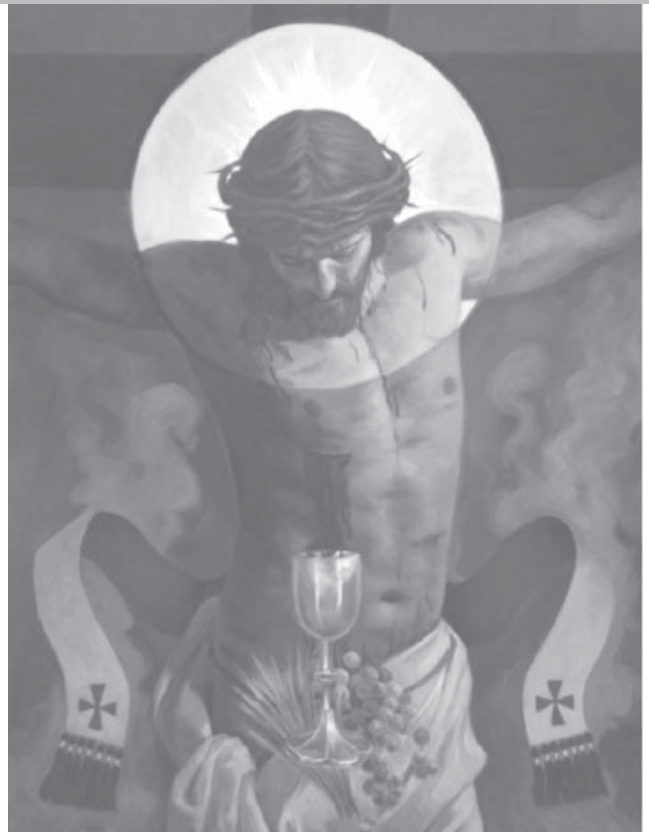
전히 정화될때,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당신 곁으로 우리를 불러 올리실 것이며, 그때 우리는 영원한 영광인 불멸의 상급을 받게 될것입니다.

"나는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파테르노의 성체 기적 (이탈리아) - 1772

1772년 1월 28일, 나플레스(Naples)로부터 약 2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성 피에레 데 파테르노(Saint Pierre de Paterno) 마을에 경악할 신성 모독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당에 도둑이 들어와 감실 안에 있던 백여개에 이르는 축성된 성병이 담겨있는 두 개의 성합을 꺼내어 가버렸던 것입니다. 이 '성체'들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적에 의한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만 가능했었습니다. '성체'들이 묻혀 있던 두 곳 모두의 장소에서는 빛을 발하였습니다. 성합을 도난당한 다음 달 2월 26일 아침, 한 포플라 나무 아래에서 땅을 파던 나플레스의 한 사제는 땅속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하였고, 그 곳에서 잃어버린 '성체'들 중 약 40여개를 찾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극심한 겨울 추위와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성체'들은 가장자리에만 약간의 흙 얼룩이 묻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성체' 주위에 있던 흙은 깨끗한 아마포로 싸여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 있었고, 그 아마포는 깨끗한 물을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던 후, 다음 목요일 저녁, 나머지의 잃어버린 '성체'들도 그와 같은 기적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새롭게 찾은 '성체'들도 또한 먼저 찾았던 '성체'들처럼 완전하게 보존된 상태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파테르노(Paterno)본당 마티아스 드안나(Matthias D'Anna)사제는 그 사건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은 그 고장의 변치않는 전설로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적인 범죄가 발생한 후, 빛이 발견되던 사이에, 노새 몰이꾼이었던 27세된 청년, 프란시스 요디세(Prancis Jodce)는 저녁이면 '성체'가 발견되었던 곳을 지나 나플레스로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종종 성체가 발견된 들판에서 한 부인이 나무에 기



대어 서있는 것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부인에게 어찌해서 아무도 없는 들판에 홀로 그렇게 서 있는지를 부인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나는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하여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성체'가 그 자리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 부인이 지극히 복된 동정녀 마리아이신 성모님이었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권능으로써 놀라운 기적들을 낳았던 그 '성체'들에 대하여 나플레스 교구장은 교회법에 의한 조사를 하게 되었고, 조사 후 그는 은으로 띠를 두른 밀폐된 원통형의 두 유리병 속에 그 '성체'들을 보관토록 하였습니다. 그 '성체'들은 그 후 모든 신자들이 경의를 표할 수 있도록 전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Les Miracles historiques du Sacrement, par le P. Eugene Coute.) 우리는 영성체를 할 때마다, 성모님의 원죄없는 잉태의 중재를 통한 흠없는 삶으로서의 순결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오 성모 마리아님, 성체 하느님의 '영광스런 도시'이신 당신께 찬미의 노래 부르나이다! **M**

성요셉 출판사: '성체와 성모 마리아'에서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님의 발현

세계의 3대 성모 발현지 중 하나로 알려진, 멕시코의 과달루페 성모님의 발현은 프랑스의 루드르, 포르투갈의 파티마 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발현으로서, 수 많은 인디언들과 주민들을 신앙으로 이끌었다. 1531년 12월 9일 이른 아침,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된 후안 디에고 (Juan Diego)는 집에서 수 킬로 떨어진 수도원의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성당을 향해 가고 있었다. 후안 디에고가 테페약 (Tepeyac) 이라는 언덕의 (현재 수도인 멕시코 시티) 고갯길을 넘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리며, 형용할 수 없는 찬란한 빛 속에서 성모님께서 '아름다운 부인'의 모습으로 발현하셨다. 성모님께서서는 후안 디에고가 사용하는 인디언들의 언어인 나후탈 (Nahuatl) 어로 이름을 부르셨다.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로 알려지기를 원한다.

"후안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영원한 동정녀 성모 마리아이다. 나는 이곳에 (테페약 언덕) 성당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그 성당에서 나에게 의탁하는 이들의 아픔과 두려움, 슬픔들을 나의 자애로운 사랑으로 위로하고, 자비를 베풀겠다. 나의 아들아, 나는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고 어디에나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어머니로 알려지

너는 왜 나의 도움을 청하지 않느냐

기를 원한다. 나의 작은 아들 후안아, 너는 주교에게 가서 이곳에 나에게 봉헌하는 성당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나의 소망을 전하여라." 후안은 즉시 주마라가 (Zumarraga) 주교를 찾아가서 성모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나 주교는 인디언인 그의 말을 믿지 않고 돌려 보냈다. 테페약 언덕에서 성모님을 만난 후안은 무릎을 꿇고 두손을 모으며 말씀드렸다.

"지극히 사랑하올 여왕이시며, 존귀하올 귀부인이시여, 저는 주교님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교님은 제 말을 믿지 않으시고 성당을 지으라는 성모님 말씀을 제가 꾸며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여왕이신 성모님, 부디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비천한 사람으로서 성모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좀 더 훌륭한 사람을 보내셔야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성사될 것 같습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에 성모님께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성모님께서 후안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셨다. "후안아, 나는 네가 나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너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이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일 다시 주교에게 찾아가서 내가 한 말들을 전하여라."

다음 날, 후안 디에고는 다시 주교 앞에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였다. 주마라가 주교는 그가 전

두려워 하지 말고 나의 말을 잘 들어라

하는 말을 모두 듣고 말하였다. "네가 하는 모든 말이 모두 사실이고, 진실로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에 대한 증표를 달라고 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후안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주교관을 나왔다. 후안이 떠나자 의심이든 주마라가 주교는 하인 두 명을 시켜 후안의 뒤를 따라가게 했다. 그러나 후안 디에고가 테페약 언덕에 이르렀을 때, 두 하인은 갑자기 짙은 안갯속에 휩싸여서 앞을 볼 수가 없었다. 성모님께서 후안의 뒤를 따르는 그들의 앞을 안개로 가려 주신 것이다. 후안을 놓친 두 하인은 주교에게 돌아가 후안이 속임수를 써서 자신들을 따돌렸다고 불평하며 모함하였다.

왜 너는 나의 내 보호를 청하지 않느냐?

내가 생명과 건강이 되어 주겠다.

후안 디에고에게 다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이미 그의 마음을 아시고, 다음 날 아침에 오면 주교가 원하는 징표를 주겠으니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후안은 성모님의 약속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평소에 자신이 돌보고 있던 후안 베르난디노 (Juan Bernardino) 삼촌을 찾아 갔다. 오랜 지병을 앓고 있던 삼촌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신부님에게 병자 성사를 받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12월 12일 아침, 후안 디에고는 성모님과 약속을 알고 있었지만 삼촌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생각으로 병자 성사를 주실 신부님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서 집을 나섰다. 테페약 언덕에 이르자 후안 디에고는 성모님을 만나면 삼촌이 병자성사를 못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때 성모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후안은 자신이 돌보고 있는 삼촌의 병환이 매우 위급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먼저 신부님을 만나야 한다고 성모님께 간청했다. 성모님께서 근심중에 있는 후안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셨다. "나의 아들 후안 디에고야, 두려워 하지 말고 나의 말을 잘들어라. 그리고 너에게 슬픈 일이나 고통이 생길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너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해라. 너는 왜 나의 보호를 청하지 않느냐? 삼촌의 병환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생명과 건강이 되어 줄터이니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

라. 내가 돌보고 있는 삼촌은 병으로 죽지 않을 것이며 건강이 회복될 것이다." (성모님의 말씀대로 후안의 삼촌은 병이 완쾌 되었다.)

성모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후안아, 너는 지금 바로 저 언덕 위로 올라가 보거라. 그곳에 가면 장미 꽃이 만발하게 피어있을 것이다. 그 장미꽃들을 너의 털마(망토)위에 담아서 내게 가지고 오너라." 후안은 성모님의 말씀대로 돌바위투성이 언덕을 오르면서도 매우 의아했다. 왜냐면 그 언덕은 늘 메마른 곳으로서 거칠은 돌무더기와 가시돋힌 선인장만 무성한 곳이기 때문에 장미꽃이 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언덕에는 성모님 말씀대로 후안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장미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성모님의 말씀대로 후안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망토를 벗어서 그 위에 장미꽃을 한가득 담아 돌아왔다. 성모님께서 후안이 꺾어 온 장미꽃들을 그의 털마 망토위에 가지런히 놓아 주시며 말씀하셨다. "후안아, 너는 이 장미꽃들을 주교에게 갖다 주어라. 그리고 이것은 내가 주는 '증표'라고 말하여라." 후안은 기쁨에 겨워서 장미꽃이 가득 담긴 망토를 감싸 안고 주교관으로 달려갔다.

오, 아름다우신 천주의 모친이시여...

그 시간에 주마라가 주교는 성모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때 후안이 무엇인가 가슴에 가득 안고 주교관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말했다. "주교님, 이 장미꽃들은 성모님께서 주교님께 주시는 증표입니다." 후안은 털마 망토를



펼쳐서 아름다운 장미꽃들을 마루위에 쏟아 놓았다. 주마라가 주교는 멕시코 지방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스페인 카스티야 지방의 특별한 장미꽃들을 보고 매우 놀랐다. 장미를 담은 후안의 털마 (망토)를 보고 있던 주교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그 망토에 아름다운 성모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멕시코에는 인쇄 기술이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또한 후안의 망토는 선인장 실로 짠 직물로서 표면이 매우 거칠었기 때문에 섬세한 그림을 그려 넣을 수 없었다.) 후안 디에고의 털마에 새겨진 성모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주교는 "오, 아름다우신 천주의 모친이시여..." 라고 말하며 천상의 증표를 보여주신 성모님께 감사드리며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렸다. 주교는 후안 디에고와 함께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곳을 돌아 본 후, 그의 삼촌에게 병자 성사를 주기 위해 집으로 갔다. 그러나 일행들이 집에 도착해보니 삼촌은 병이 완쾌되어 있었다. 후안의 삼촌은 위독한 병중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눈부시게 찬란한 옷을 입은 귀부인이 나타나서 병을 치유해주었다고 증언했다. 성모님께서 후안에게 약속하신 대로 삼촌의 병을 치유시켜 주신 것이다. 후안의 삼촌은 그 귀부인이 자신을 "과달루페의 성모 마리아"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과달루페'라는 뜻은 멕시코 원주민 언어로 '돌뿔을 쳐부수다'라는 뜻이 담겨있다. 성모님께서 후안 디에고와 그의 삼촌에게 5 번 발현하셨다. 과달루페 성모님의 발현 8년 이 후, 멕시코 주민들과 인디언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멕시코인 8 백 여만명 이상이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고 개종했다. 또한 그들이 우상 숭배하던 태양신인 '윗실로 포즈틀리'에게 전쟁 포로들의 심장을 꺼내 바치던 풍습을 버렸으며, 해마다 2만여 명 이상의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산 제물로 바치며 섬기던 우상 '켓살코 아틀'(돌뿔)에 대한 우상숭배 행위가 사라졌다.

발현 기념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후안의 털마 망토

과달루페 성모님께서 후안 디에고의 털마에 남겨주신 성화는 인디언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와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성모님의 성화가 새겨진 요한의 털마는 (인디언 남자들이 망토로 사용하던 모포로서 아야테



(ayate)라는 선인장 줄기에서 뽑은 실로 짠 직물) 당시의 아지텍 제국의 모든 남자들의 외투로 사용하여 어깨에 둘러서 입는 커다란 천으로 만든 것이다. 그 털마는 본래 매우 큰 것 이었지만 성모님의 모습이 나타난 곳만을 잘라서 액자에 보관하고 있다. 그 당시의 원주민들의 의복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털마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삭아지는 직물로서 오래 보존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의 과달루페 성모님의 성화가 새겨진 후안 디에고의 털마 망토는, 480여년이 지났음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그 성화를 연구한 현대 과학자들은 원형의 상태를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은 판단할 수 없는 불가사리한 기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발현 목격자 후안 디에고

성 후안 디에고(St. Juan Diego)는 1474년에 쿠아토아친 (말하는 독수리' 라는 인디언 이름의 뜻) 지역의 쿠아우틀리틀란(Cuautlitlan, 현재 멕시코시티 일부)에서 태어났다. 그는 치치메카인으로 아나후악 계곡 (Anah uac Valley)에 모여 살고 있는 원주민의 일원이었으며 그 당시 그들은 문화적으로 진보된 인디언들이었다. 후안 디에고는 나이 50 살이 되던 해, 프란치스코 수도회 소속의 피터 다간드(Peter da Gand)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그는 1531년 12월 9일에 현재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 끝지역인 테페약 언덕 (Tepeyac Hill)에서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했다. 발현 이후, 후안 디에고는 성모님의 모습이 담겨진 기적의 망토가 전시된 발현 기념 성당 근처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평생을 보냈다. 과달루페 성모님의 발현 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수 많은 순례객들과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던 후안 디에고는 1548 년

과달루페 성모님 성화의 과학적인 연구 결과



74세로 세상을 떠났다. 과달루페 성모님의 발현은 1555년에 1차로 멕시코의 두 번째 추기경인 알론소 데 몬투발 추기경과 대교구 주교단에 의해 기적으로 인정되었다. 그 후 2차로 1666년 2월 18일 부터 3월 22일, 그리고 1723년 란지예고 이 이퀼라 스 (Lanziego y Eguilaz) 추기경에 의해 시복되어 복자품에 올랐다. 2002년 7월 31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된 후안 디에고는 멕시코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과달루페의 성모님에 대한 교황청의 선언들

1754년 5월 25일, 교황 베네딕토 14세는 교서 《Non est equidem》을 발표하여 과달루페의 성모님을 스페인 중부와 북아메리카가 포함된 뉴 스페인이라 이름 지어진 땅의 수호성인으로 선언하였으며 성모님을 위해 미사와 성무일도를 바치는 것을 공식 승인하였다. 교황 레오 13세는 1891년에 새 성무일도를 승인하였으며, 1895년에 성화의 대관식을 장엄하게 거행하였다. 교황 성 비오 10세는 1910년에 과달루페의 성모를 라틴 아메리카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하였다. 1935년 교황 비오 11세는 과달루페의 성모를 필리핀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하였으며, 바티칸 정원에 이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다. 교황 비오 12세는 1945년에 과달루페의 성모를 "멕시코의 여왕이자 아메리카 대륙의 여제"로 공표하였으며, 1946년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수호성인"으로 명칭을 제정하였다. 교황 요한 23세는 1961년에 "아메리카 대륙의 어머니"인 과달루페의 성모를 가리켜 모든 아메리카 주민들의 어머니이자 믿음의 교사라고 언급하며 그녀에게 전구를 청하였다. 그리고 1966년에는 교황 바오로 6세가 과달루페의 성모화를 보관하는 대성당에 황금 장미장을 수여하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79년 1월 31일에 교황으로서 이탈리아를 벗어난 첫 번째 사목 방문지로 과달루페를 선택하여 방문하였다. 그리고 1990년 5월 6일에 후안 디에고를 시복하였다. 1992년에 그는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전 지하에 과달루페의 성모 경당을 지어 축성하였다. 1999년 1월 22일, 요한 바오로 2 세는 아메리카 주교회의의 요청을 받아들여 과달루페의 성모 축일을 아메리카 대륙 교회 전체의 전례 축일로 지정하였으며, 다음날에 과달루페의 성모 대성당을 다시 방문하였다. 2002년 7월 31일, 그는 1천 2백만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후안 디에고의 시성식을 거행하였으며, 다음해에 성 후안 디에고(12월 9일)와 과달루페의 성모(12월 12일)를 로마 전례의 전례력에 기재하였다.

현대 과학 문명중의 하나인 디지털 기술은 과달루페 성모님 성화의 신비를 푸는데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동안 과달루페 성모님 성화를 조사해온 많은 과학자들의 결론에 의하면, 마치 사람이 어떤 물체를 보고 있을 때, 사람의 눈에 그 형체가 반영되듯이 과달루페 성모님의 양쪽 눈에 어떤 형체의 사람의 모습들이 반영되어 보인다는 것이다. 그 중에 새롭고 흥미로운 연구는 코넬대학을 졸업하고 아이비엠 (IBM)회사에 근무하던 호세 아스테 돈스만 박사가 성화의 원본을 고화질 영상으로 스캔하면서 시작되었다 (1979). 디지털화된 영상의 고도의 기술을 통한 연구 결과로서, 성화의 양쪽 눈에 사람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었으며, 이와 함께 또 다른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돈스만 박사에 의한 과달루페 성모님 성화의 연구 결과는, 로마의 교황청 학술원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돈스만 박사는 영상 정보를 전달하는 인공위성과 우주 탐측기에 사용되는 디지털 방식을 통하여, 현미경으로 보아야 할 정도로 매우 미세한 크기를 2,500배 확대하여 조사한 결과, 성모님의 홍채와 동공에서 최소 13명의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스만 박사와 과학자들은 성모님 발현 당시인 18세기경의 멕시코에는 후안 디에고의 털마와 같은 거칠은 직물에, 과달루페 성모님 성화와 같은 섬세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불가능함과 사람의 손으로 그려진 것이 아님을 주장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Richard Kuhn도 과달루페 성모

님 성화에서는 천연적인, 또는 동물이나 광물성 채색이 전혀 없음을 증언했다. 1979년 미국 항공우주국 (NASA) 박사들인 Philip S. Callahan과 Jody Brant Smith는 적외선 광선을 이용하여 과달루페 성모님 성화를 조사했다. 그러나 성화에서 그림을 인위적으로 그린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선인장 실로 만든 털마에서도 어떤 인위적인 처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돈스만 박사는 "어떤 기술로도 처리 되지 않은 털마 직물위의 색상이 그토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원본 상태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또한 사람이 그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색채가 그 광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반문했다. 돈스만 박사는 보는 각도에 따라 성화의 색상이 변하는 현상은 무지개 빛과 같은 것으로서, 사람의 손으로는 절대로 재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돈스만 박사와 그 일행들은 과달루페 성모님의 오른쪽 눈에는 성모님 발현 당시 주교 앞에서 자신의 외투를 펼치는 후안 디에고와 주교의 시중을 들고 있는 흑인 여종, 한 손으로 턱수염을 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는 스페인계 남자 한 사람 등이 있다고 한다. 즉, 성모님 눈은 즉석 사진처럼 주교 앞에서 분명히 보여 주신 성모님의 모습과 그 당시의 상황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이다.

또한 동공의 중앙 부분에는 훨씬 축소된 또 하나의 장면을 확인했다. 이것은 원래 발견 되었던 첫 번째 반영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반영이라고 과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 두 번째 반영속에는 아기를 업고 있는 여자와 몇몇 아이들로 구성된 한 가족의 모습이 보였다.

돈스만 박사는 성모님께서 당신의 발현을 증명하기 위해 기적의 성화를 남겨 주신 것뿐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을 이 성화를 통해 남기셨다고 말한다. 그는 이 두 번째 반영은 이를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현시대를 위해 '동정 마리아의 눈에 숨겨 놓은 심오한 메시지'로서 성모님의 눈동자 중심에 있는 가족들의 모습은 오늘날 심각한 위기에 처한 현대인들에게 가족의 중요한 상황을 일깨워 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2002년 1월말 미국의 다큐멘터리 전문 TV방송인 디스



커버리 채널은 '과달루페 성모마리아-신앙과 시성사이에 서'라는 제목으로 "후안 디에고의 기적 체험과 과달루페 성모 마리아가 멕시코 사회에서 왜 끊임없이 논란을 빚는가"에 대해 종교 학자들의 멘트를 빌어 하나 둘씩 의문점을 풀어 나갔다. 우선 용설란에서 추출되는 마게이 섬유질로 짠 아야테 또는 털마 소재의 후안 디에고의 망토가 수백년이 지나도록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망토 위에 나타난 성모 마리아상이 누군가가 일부러 붓을 댄 흔적이 없는 초자연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기적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들었다. 또한 과달루페 성모 마리아가 출현한지 얼마뒤인 1548년에 작성된 '에스칼라다'라는 종교 서적에 과달루페 기적이 상세하게 묘사돼 있어 역사적 사실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점도 기적을 보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 이후의 기적은 지난 1920년

후안 디에고의 망토 등이 보존된 과달루페성당안 제대 부근에서 폭발사건이 발생, 모든것이 풍비박산 났음에도 망토와 성모 마리아상만은 무사했다는 점도 기적의 신비를 절정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당시 상형문자를 사용하고 모든 의사 소통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던 인디언들에게 털마에 새겨진 성모님의 성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이 성화는 하늘에서 주는 완벽한 메시지가 담긴 대단한 사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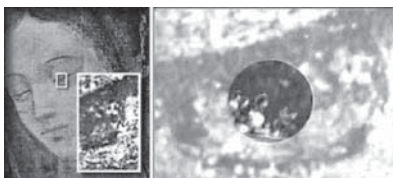
그 결과 수많은 원주민들이 성모님의 발현을 계기로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 오늘날에도 성모님 발현 기념 성당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온 부모들이 이 성화앞에서 아기를 안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성모님 발현 전, 우상숭배 행위 때문에 희생되어온 수많은 아기들의 생명을 구해주신 성모님께 감사드리면서, 자신들의 아기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청하는 아름다운 관습이다.



1. 눈

털마에 새겨진 성모님의 눈은 아래를 향해 보고 있다. 이 모습은 성모님께서 인

디언들이 믿는 신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인디언들이 믿는 신들은 절대로 눈을 아래를 향하고 있지 않으며, 앞을 바라보았다고 한다.



성모님의 눈동자

후안 디에고의 털마에 새겨진 성모님 그림의 눈을 자세히 보면, 특별한 이미지가

담겨있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눈동자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현대 과학의 디지털 기술에 의해 성모님의 눈동자에 나타난 잔상의 이미지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로서 각각의 눈동자에서 위치가 다른 동일한 이미지를 확인했다. 성모님 눈동자 속에 있는 이미지들은 실제 사람의 눈이 사물을 바라 볼때 비치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서, 후한 디에고가 주마라가 주교와 만나던 모습임을 확인했다.



2. 얼굴

과달루페 성모님의 얼굴에는 큰 동정심과 연민이 담겨있다. 인디언들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내적 인면과 사람 됨됨이 및 그의 인격과 품성 등을 알았다고 한다. 그들이 믿는 좋은 여자의 상은 얼굴에 여성스러움이 잘 나타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인디언들은 자신들과 같은 검은 피부의 얼굴과 검은 머리로 발현하신 과달루페 성모님을 자신들과 같은 혈통의 동족이라고 믿었다.



3. 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있는 과달루페 성모님의 손은 유럽

인들이 기도할 때 보여주는 전통적인 모습이 아니고 인디언들이 제사 지낼 때와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 인디언들은 가슴에 모으고 있는 성모님의 손이 앞으로 때가 되면 성모님을 통하여 무엇인가 바쳐질 것임을 믿었다.



4. 허리의 복대

성모님의 허리에 둘러진 복대끈은 임신한 여인을 나타내는 인디언들의 표시이

다. 그들은 이러한 복장으로 발현하신 모습을 보고 성모님께서 미래에 어떤 분을 출산하실 분이시라고 믿었다.



5. 망토의 별문양

과달루페 성모님은 청록색 망토를 두르고 오셨다. 인디언들은 성모님의 망토에

새겨진 별들의 위치를 보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곧 올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었다. 전통적으로 인디언들은 시대의 시작과 끝에 대한 표징으로 별들을 보고 예측

했다. 또한 어떤 문명이나 시대가 끝나거나 멸망할 때는 반드시 별들이나 혜성 등이 미리 알려 준다고 믿었다.



6. 태양광선

인디언들에게 태양이 자신들의 문명을 유지시켜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태양을 가리고 오직 빛을 비추이는 성화에서 성모님은 태양보다 더 위대한 분이심을 뜻한다고 믿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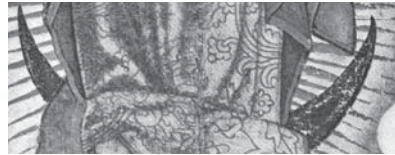


7. 청록색 망토

틸마 망토의 주색(色)은 터키색인 청록색이다. 인디언들에게 이 청록색은 자신들이 가장 높은 신(神)으로 섬기던 오메시 후아달(Omecí huatl)을 뜻한다.

인디언들은 그를 모든 신들위에 군림하는 최고의 신으로 우상숭배하며 섬겼다. 또한 오메시 후아달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두 가지

의미를 갖은 중성으로서, 여성 혹은 남성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인디언들은 자신들이 우상숭배하며 섬기던 오메시 후아달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화합하게 해 주는 원천이라고 믿었다.



8. 초생달

초생달을 밟고 서있는 성모님의 모습은 인디언들이 2번째 밤의 신(神)으로 섬기던 달의 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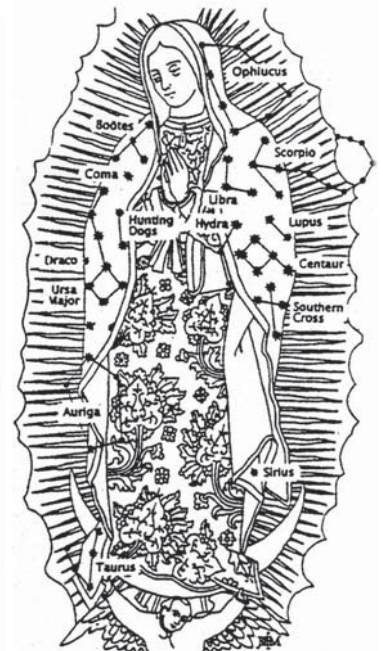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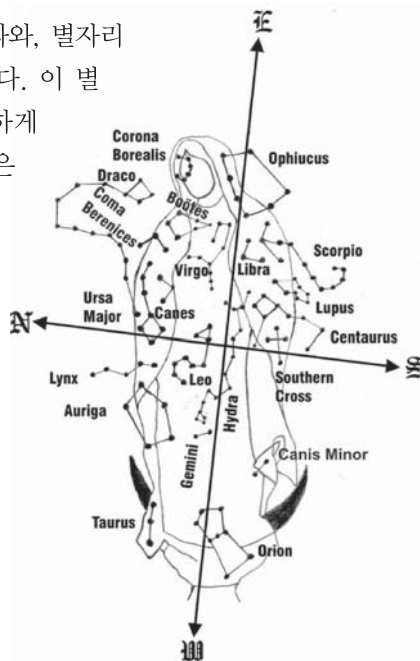
9. 천사

인디언들은 성화의 하단에서 성모님을 받치고 있는 천사를 중간 계급의 신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이 천사들이 최고신을 대신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끈다고 믿었다. 그들은 새로운 문명이 생겨났다가 사라질 때 자신들도 함께 죽었다가 또 다른 문명이 생겨날 때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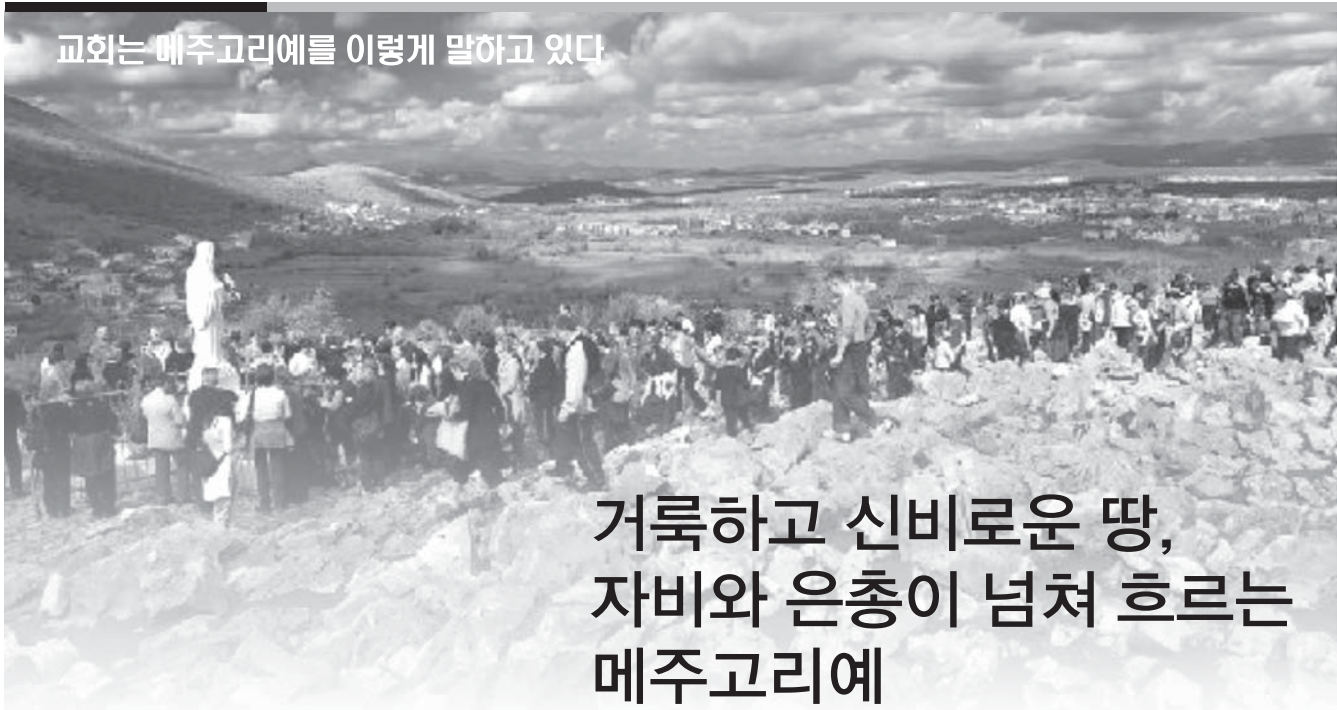
성모님 망토에 새겨진 별들의 위치와 의미

과달루페 성모님의 망토에는 발현하신 날짜와, 별자리를 상징하는 총 46개의 별들이 수 놓아져 있다. 이 별들은, 실제로 천문학적 별들의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그 당시의 아즈텍 인디언들은 천체의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천문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틸마에 새겨진 별자리만 보고도 성모님께 특별한 분이시며, 발현이 의미하는 바와 그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히 알았다고 한다. **M**

<http://www.sancta.org/eyes.html>에서
2001년 1월 14일, 로마 ZENIT 통신, 과달루페 선교원
기사 발췌 및 요약 / 평화의 모후 선교회 편집부 제공



교회는 메주고리예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거룩하고 신비로운 땅, 자비와 은총이 넘쳐 흐르는 메주고리에

필립파비치 신부

(크로아티아 출신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프란치스코회 소속 필립 파비치 신부는 성야고보 본당과 협력하고 있다. 필립 신부는 영어 미사를 봉헌하며, 영어권에서 오는 순례자를 위한 연락을 맡고 있다. 이 인터뷰에서 그는 메주고리예에서 봉사하기 위해 1987년 어떻게 이스라엘 성지를 떠나오게 되었는지 말한다.)

질문 : 필립 신부님,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메주고리예에서 발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필립신부 : 네, 확실히 믿습니다.

질문 : 어떻게 그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까?

필립신부 : 제가 처음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예에 발현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주의를 끈 것은 1981년 6월 24일이라는 첫 발현 날이었습니다. 그 날은 요한 세례자의 대축일이며 바로 제 사제 서품일이었습니다!

질문 : 그것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었습니까?

필립신부 : 우선, 1957년 바로 그 날은 제가 사제서품을 받은 날입니다. 따라서 요한 세례자는 제 사제직의 수호성인이었고, 저는 그분을 무척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에 11년 있는 동안, 저는 순례단들을 현대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요한 세례자가 태어난 에인 케렘에 데리고 가서, 그분에 대해 설명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요한 세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 세례자는 4대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매우 의미 있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하느님의 어린양이 저기 계신다." 모든 사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요한 세례자가 제 수호성인인 것이 행복합니다.

다음으로, 성모님의 발현하시는 방법이 제게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팔에 아기 예수님을 안으시고, 소위 발현목적 증인들에게 그분을 보여 주셨고 동시에 그들을 그분께로 초대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성모님께서 요한 세례자의 정신 속에 있는 평화와 믿음, 회개와 기도, 그리고 단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시기 위해 일부러 그 날을 택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발현을 목격할 아이들이 그렇게 심오한 일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발현이 사실이라고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질문 : 다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필립신부 : 저는 또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셨던 타볼산으로 많은 순례단을 안내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곳에서, 저는 위대한 입법자와 예언자와 사제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

이곳은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거룩하신 하느님과 그리고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하나가 되도록 묶어 주는 곳입니다.

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신약의 증인인 것처럼 그들은 구약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나의 하느님께서는 주님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엘리야는 바로 요한 세례자와 연결되는 분입니다. 엘리야 또한 카르멜 산에서 바알의 거짓 예언자들과 싸운 그 유명한 결투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드러내는 위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오늘날 사람들처럼 누가 참된 신인지 더 이상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느님 마음에 드는' 희생을 통해 참 하느님을 드러냈고, 사람들이 "주님은 하느님! 주님은 하느님!" 이라고 외치면서 그분을 열렬히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질문 : 엘리야가 요한 세례자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필립신부 :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는 "주님의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엘리야를 본 것 때문에 당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구세주가 오시기에 앞서 엘리야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요한 세례자와 연관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것이 요한 세례자를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질문 : 성모님과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필립신부 :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요한 세례자가 어떻게 당신 자신에 관해 '바로잡는 사람'이며 당신을 '계시하는 사람'인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모님께서서는 교회를 바로잡아 다시 세우시고, 자주 말씀하시듯이 사람들이 당신 아드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섬기기를 열망하게 하려고 오십니다.

질문 : 신부님은 어떻게 메주고리예에 오게 되었습니까?

필립신부 : 간단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곳 목자이시며 주임신부이십니다. 이곳은 호수 이편에서 저편까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던 본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아무도 여기서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다음과 같은 대답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메주고리예로 가고 있다."

질문 : 메주고리예에 가고 싶은 것도 바로 그때입니까?

필립신부 : 맞습니다! 1984년 10월, 저는 6,000명의 사제들과 함께 피정을 하러 로마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일랜드 서부 골웨이에서 온 아일랜드계 프란치스코회 데스몬드 오말리 신부님이 약 150명의 사제들과 함께 로마에서 메주고리예로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메주고리예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저를 이미 이스라엘 성지로 부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크로아티아 이민자이며 이미 프란치스코회 소속 사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데스몬드 신부님에게 가능하다면, 발현목적 증인을 통해 성모님께서 제가 메주고리예에 와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지 좀 여쭙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질문 : 발현목적 증인에게 물어 보았습니까?

필립신부 : 네, 놀랍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반을 통해 주신 응답을 데스몬드 신부님이 몇 개월 후에야 보내 주었습니다. 영어는 엉망이었지만, 그 답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가 뜻이 있으면,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우리를 도우러 오게 될 것이다."

질문 : 신부님, 가끔 이스라엘 성지가 그림기도 합니까?

필립신부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에 있는 것 같으니까요. 메주고리예는 훌륭하고 신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이며, 위치 자체로도 '지리적으로 거룩한 땅'입니다. 메주고리예라는 지명은 '산과 산 사이'라는 뜻으로, 사방이 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발현을 통해 메주고리예에 새롭고 신비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성당' 같은 의미 말입니다. 성야고보 성당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활동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

리아와 함께, 이 성당은 발현 '산'과 십자가 '산'에서 생명을 받고, 거기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에게 이 두 산은 성부와 성자의 업적을, 참다운 '거룩한' 땅을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질문 : 그 두 산이 순례자들의 주요 목적지이겠군요.

필립신부 : 정말 그렇습니다. 순례자들은 늘 발현산에 갑니다. 발현산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그 여인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위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초대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그 여인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세상에 '당신들의' 아드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환희의 신비와 '성부의 업적'을 봅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은 늘 십자가산을 오릅니다. 그 산에 있는 십자가는 메주고리예의 핵심적 상징입니다. 1993년 메주고리예 본당 신자들이 세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업적을 보여 줍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인류를 구속하시고, 사탄을 물리치시며 우리 모두를 당신에게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당신 어머니에게 이끌어 주시어 우리의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모님에게 태어났으므로 '성자의 신부'로서 그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 고통의 신비이며 '성자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성야고보 성당은 '성령의 업적'을 상징합니다. 마리아께서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당신 아드님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끄시고 '당신의 나머지 자녀들이

되도록 어머니로서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성야고보 성당은 영광의 신비이며 '성령의 업적'입니다. 마리아께서는 하느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완전한 파트너이시며, 이 세 장소에 다 계십니다. 따라서 저에게 메주고리예는 진정으로 거룩하고 신비로운 땅이며, 자비와 은총이 풍성하게 넘쳐흐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거룩하신 하느님과 그리고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하나가 되도록 묶어 주는 곳입니다.

질문 : 신부님은 정말로 성모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립신부 : 네, 저는 많은 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주며, 상담하고 강론하면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성모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기회를 매일 만납니다. 성모님께서 저를 준비시키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 성지로 부르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느님 사랑의 메시지인 성경에 뿌리를 두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이 새로운 성지에서 순례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구약에서 순례자들은 "주님께 올라가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성모님의 발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주님께 올라가라."는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M**

평화의 모후 발현, '우주의 여왕'에서



실터

어려움이 닥쳐오면 신뢰를 가지고
그것들을 원죄 없으신 성모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성모께서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없애 주시든 적게 해 주시든 늘리시든
혹은 그대로 두시든 성모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모든 것을 성모의 뜻에 맡기십시오.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당신의 아들입니다.

75차 순례자의 강론 묵상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러분,

오늘은 묵주기도의 동정 마리아 축일입니다.

성모님께서 살아생전에 첫 발현을 하셨던 거룩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우리 교회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 당신의 발 아래에 계시던 성모님과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여인이여, 이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는 너희의 어머니입니다." (요한 19:26,27)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남기신 이 유언은 우리 교회에 어머니를 주신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려 주는 것입니다. 당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시면서 우리를, 나를, 나를 여러분을 구원해주신 예수님께서서는 성모님께 우리를 보호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모님께서 받은 두 번째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성모님의 첫 번째 사명

성모님의 첫 번째 사명은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매일 세 번씩 바치고 있는 삼종기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죄와 물질만능주의에 젖어버린 이 세상에 하

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외쳐야 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죽음으로서 성모님의 첫 번째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길과 죽음의 시간에 함께 할 사도들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아신 주님께서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루카 23:34)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계시던 성모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모님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서로를 바라보던 두 분의 눈길은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이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는 당신의 남은 일들을 성모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차가운 시신을 품에 안으신 성모님께서서는 비통한 눈물을 흘리시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당신의 첫 번째 사명을 다 이루었음을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찬미 받으소서!" 성모님께서서는 당신의 첫 번째 사명은 십자가에 매달려 죄인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품에 받아 안음으로써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려고 왔다"

성모님의 두 번째 사명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복되신 동정녀이신 성모님께서 두 번째 사명을 시작하신 거룩한 곳입니다. 성모님의 첫 번째 사명은 복음 전파를 하던 중 좌절하던 야고보를 격려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을 생각해보아라. 너는 그분의 사도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도와주겠다. 힘을 내어라. 이곳에 성당을 지어 나에게 봉헌해다오." 지치고 지친 야고보에게 쉬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당을 지을 것을 원하신 성모님...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당시의 외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던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힘들고 지쳤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겠습니까? 성모님께서 그런 야고보에게 이제는 좀 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당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도와주겠다,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에게 성당을 지을 돈을 주겠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모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말씀은 즉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질 만능에 젖어 하느님을 버린 이 세상, 죄의 분별조차 어리석은 일이 되어 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기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당을 지으라는 성모님의 말씀은 가나안의 혼인 잔치로 부르시는 초대장입니다. 성모님의 초대장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혼인 잔치는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나안의 혼인 잔치를 열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성모님의 초대장을 드립니다. 그곳은 바로 메주고리에입니다. 메주고리에는 성모님께서 두 번째 사명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

룩한 곳입니다. 성모님께서 거룩한 땅 메주고리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려고 왔다." 이는 성모님의 두 번째 사명과 그 목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초대입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와 함께 기뻐하며 나에게 너희 자신을 열어 세상의 구원을 위한 나의 도구가 되어주도록 초대한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메시지에서 느낀 거룩함의 향기를 하느님과 하느님 사랑에 굶주리는 이 세상에 전해 주기 바란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응답해 주어 너희 모두에게 감사한다. 나는 어머니로서 너희를 모두 축복한다. **M**의 부르음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94년 3월 25일

Queen of Peace Missionaries

www.qpmm.org / E-mail: qpmm.org@gmail.com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편집인 : 박창득 문시놀
 지도신부 : 박창득 문시놀 (뉴욕대교구)
 자문위원단 :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블
 웹관리자 : 박 어거스틴
 편집위원 : 남 미카엘라, 김성주, 박 소화 데레사, 최 레지나

미 P.O. Box 843, Ridgefield, NJ 07657
국 Tel : (201) 945-4777 / CP & 카톡 (917) 626-4314

한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719-2 백상 프라자 109호
국 Tel. 010-5713-2333

카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나 Tel. 403-288-0469
다

메주고리에 성 야고보 성당의 실시간 저녁예절 한국어 중계 방송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www.qpmm.org



선교회 홈페이지가 메주고리에 성야고보 성당 저녁예절의 한국어 공식 웹사이트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메주고리에 성야고보 성당에서 현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미사와 성시간, 십자가 경배, 치유예절 및 특별행사들의 중계방송을 한국어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및 지역적인 기타사항으로 메주고리예를 올 수 없는 수많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선교회의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을 통하여 메주고리예의 은혜로운 저녁예절을 참여함으로써, 성모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선교회가 이와 같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시통역 및 특수 웹디자인과 기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선교회를 후원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도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매일 함께 묵주기도를 하고 기도하여라!" 메주고리에 성야고보 성당의 저녁 예절이 시작된 동기



"오늘 성모님께서 매일 로사리오 기도를 함께 드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81년 7월 4일 야콥출로가 전한 성모님의 메시지)

"성가대쪽에서 큰 빛이 나타나더니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함께 묵주기도를 하고 기도하여라!"

(1981년 7월 4일 저녁 야콥이 전하는 성모님의 메시지에 따라 성당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묵주기도 할때 성모님의 발현을 본 요조 신부님의 증언)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이 본당을 특별히 선택했고, 내가 직접 이끌어 주고 싶다.

나는 이 본당을 나의 사랑 안에 보호하고 있고 모두가 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 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언제나 나와 내 아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1984년 3월 1일 성모님의 메시지)

미국, 캐나다, 한국 및 기타 지역의 실시간 중계 방송 시청에 따른 일정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땅에 태어나신 구원의 말씀이시나이다.
새해에는 저희가 당신과 함께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소서.
성모님과 함께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길이 되게 하소서...

지난 한해 동안 평화의 모후 선교회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의 기도와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과 함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드립니다.
2014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및 봉사자 일동 드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국 P.O. Box 843
Ridgefield, NJ 07857

한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 1동
719-2 백상프라자 109호

캐나다 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이스라엘, 요르단

이스라엘 : 예루살렘, 쿤란, 사해, 예리고, 베들레헴, 예인케렘, 갈릴래아,
가파르나움, 나자렛, 티베리아스, 타볼산, 카이사리아, 엠마오 등등...
요르단 : 페트라, 와디우사, 느보산, 마케루스, 베디니아 등등...



2014년 3월 16일 26일 (10박 11일)
JFK 공항 출발 \$2,650 / LAX 국제 공항 출발 \$ 2,850

메주고리에, 드브로브닉, 이태리, 로마, 루르드

2014년 3월 25일~ 4월 5일 (11박 12일)
NC (CLT) 국제공항 출발 \$3,350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 이태리, 드브로브닉, 메주고리에

2014년 5월 6일~ 5월 21일 (15박 16일)
뉴약 (EWR) 출발 \$ 3,950



성지순례 문의처
610-366-9613 / CP, 카톡 917-626-4314 / E-mail : qpmm.org@gmail.com
www.qpmm.org 에 2014년 성지순례 자세한 일정이 있습니다.

PRSRST STD
US POSTAGE PAID
ALBRIGHTSVILLE, PA
PERMIT NO. 5